

# IBKS Economy Monitor

## Focus on Week: 다시 경기에 대한 논쟁으로 진입하는 국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예민한 발언들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크게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조정국면에 진입해 있다. 지정학적 위험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금융시장 조정기를 거치며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만한 이슈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와 관련한 논쟁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들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리지표에 반영된 기대감이나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들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모멘텀이다. 상반기 예상보다 가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둔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상반기를 거치며 주가를 비롯한 주요 자산가격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흐름이나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야 한다. 주식시장이 분기점에 선 것처럼 향후 우리 경기흐름 역시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찾아들면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여전히 확장국면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 이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도 사실

최근 우리 경제는 점점 논쟁의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여전히 확장국면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들을 뚜렷하게 보내는 것도 아니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불안이나 새정부의 부동산 억제 조치 등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도 있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체감 경제지표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 이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문제는 모멘텀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은 상반기에 비해 개선 추세의 약화가 조금씩 뚜렷해지는 흐름이고 선행 지표들에서는 둔화되는 흐름도 보여진다. 최근 발표된 6월 산업활동 동향과 7월 대외거래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광공업 생산지표는 5월 YoY 2.6%에서 6월 1.5%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6월 생산 증가율이 낮아진 것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5월 장기간의 연휴로 인한 생산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출하는 지난 5월 -1.1%보다는 높지만 -0.1%를 기록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7월 수출 증가율이 19.5%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지만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7월 수출액은 2.8% 증가에 그친다. 비제조업 부분에서 서비스업 증가율은 2% 수준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건설기성액은 5월 15.1%에서 6월 6.5%로 떨어졌다.

한두 달의 지표만을 놓고 향후 경기 방향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생각보다 실제 우리나라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논쟁의 여지를 만든다. 5월과 6월 산업활동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면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그리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이 높지 않다. 대표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보면 2분기 2.7%로 나타나지만 계절조정 전기비 성장률은 0.6%로 지난해 전기비 증가율보다 크게 높지 않다. 게다가 건설 부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

### ▶ Economist

#### 정용택

02) 6915-5701  
ytjeong0815@ibks.com

#### 박옥희

02) 6915-5672  
marble@ibks.com

#### 안소은 (RA)

02) 6915-5657  
ase331@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경기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들, 선행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불안한 흐름

실물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실제보다 경제지표가 좋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번 상반기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경제지표가 심리지표와 경기선행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심리지표에서는 향후 일자리 증가와 같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선행지수의 강한 상승은 대부분 주가지수의 상승과 앞서 언급한 소비자자기대지수의 반등에 기인한다. 이 역시 기대감을 반영한 지표다. 또 하나 이런 괴리를 형성한 데는 산업으로 보면 IT,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로의 쏠림 또는 편중도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향후 경기의 방향을 판단하게 하는 선행 지표들은 조금씩 불안한 흐름을 보여준다.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 중에서 보면,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의 하락이 눈에 띈다. 재고순환지표는 향후 생산 증가율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건설수주액의 변화는 GDP와 건설사들의 매출에 포함되는 건설기성액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있다. 또 하나 경기선행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비투자추계 증가율과 대비되는 낮은 평균가동률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준다. 수치 자체로 보면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이 기저효과로 인해 부풀려져 있다는 점과 생산활동이 생산설비를 충분히 이용할 만큼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괴리는 IT 산업에 투자와 가동이 극심하게 편중돼 있음도 의미하고 가동률이 가장 중요한 설비투자 압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의 설비투자가 그리 활발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 지정학적 위험이 잦아들면 경기에 대한 논쟁은 조금 더 격화될 것 ▶ 부정적 기저효과의 영향 확대와 글로벌 통화정책 기류의 변화

이런 흐름은 향후 더 강화됨으로써 경기 논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기저효과 때문이다. 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여지는 우리나라 경제지표는 속성상 분모가 되는 지난해의 수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금년 상반기가 긍정적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시기였다면 하반기 이후는 그 반작용으로 점차 부정적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기저효과를 발라내 놓고 지표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효과가 포함된 헤드라인 숫자 역시 분명히 의미를 갖고 있고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반기 대비 낮은 헤드라인 수치들이 나오는 국면에서 이 수치에 반영된 기저효과의 크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커질 것이고 그 자체로 경기 관련한 논쟁이 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저효과의 영향이 일종의 기술적인 영역이라면 향후 경기 논쟁에 불을 붙일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류의 변화일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경기 및 금융시장 흐름의 출발점이 누적된 미국의 저금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흐름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곧 향후 경기 흐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동인이 제기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동인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업 실적 개선은 경기 반등, 그것도 내수보다는 수출경기의 반등이 가장 주된 원인이다. 수출이 개선됐다는 것은 우리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가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지표 역시 수출 부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경기 회복을 이어온 미국 경제의 견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꾸준한 확장은 구성별로 보면, 투자나 순수출의 기여보다는 소비 경기의 기여가 월등히 크게 작용하는데 미국 소비의 동력은 늦게 반등하기 시작했고 기율기도 완만한 경상소득의 증가라기 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나 대출여건 개선에 따른 부채효과 등이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이 자산가격 상승과 대출여건 개선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세 번에 걸친 양적완화로 유도한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의 결과물이다.

현재 미국은 이 정책 흐름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통화정책 전환을 조만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이후 경기는 앞서 언급한 흐름과는 다른 방향성이 설정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자산 재투자 축소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지금 금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시행시 시장 기대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념상으로 보면, ‘연준 보유자산 축소(장기국채 및 기관보증 주택저당증권 매각) → 기간 프리미엄 상승 → 장기금리 상승 → 담보대출 및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 상승’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미국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 파급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 통화정책의 변화가 보다 표면화되고 강도가 강화될수록 이로 인한 경기 논란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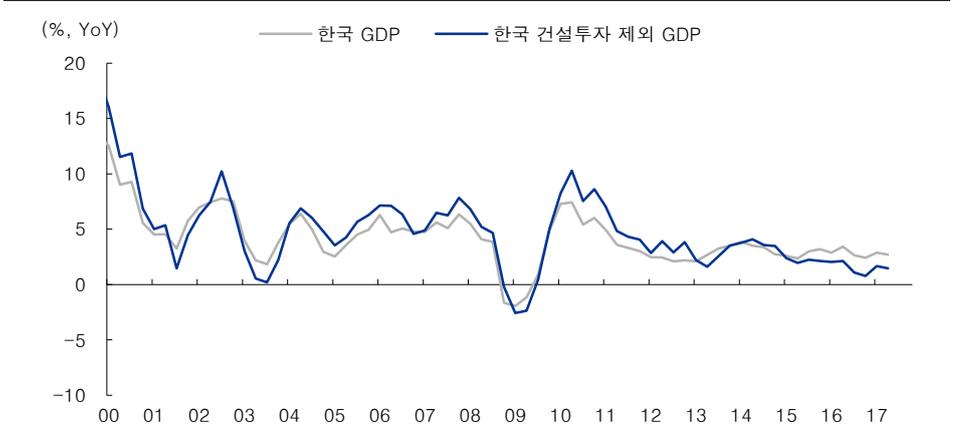
일정상으로는 보면, 현재 8월 위기설 등이 불거지면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있지만 전쟁 개시 등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과거 경험상 지정학적 위험이 한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8월 말에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 초순(7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 9월 중순(19~20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돼 있다. 지정학적 위험이 잦아들면 경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림 1. 5월에 이어 6월에도 생산 관련 지표 둔화 → 긴 연휴가 있었던 5월과 달리 6월은 일회성 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기 모멘텀 둔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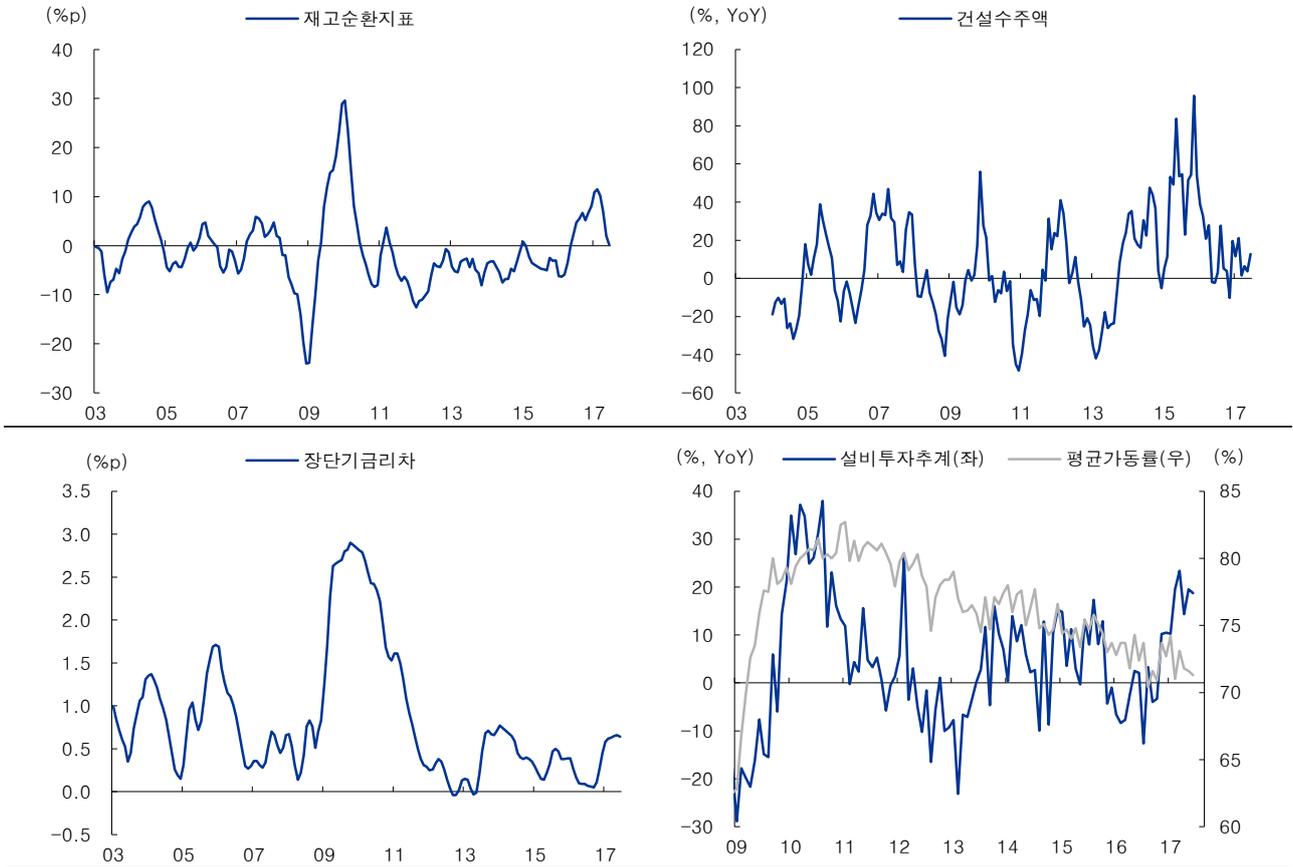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투자증권

그림 2.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기대보다 양호했지만 건설기성액의 효과나 반도체 경기에 편중된 현상 등 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음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3. 주가 상승이나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선행지수 상승 중이지만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중요한 구성지표들이 반락하고 있기 때문. 선행지수 구성지표는 아니지만 낮은 가동률 등도 고민해 볼 문제



자료: 통계청, IBK투자증권

## Weekly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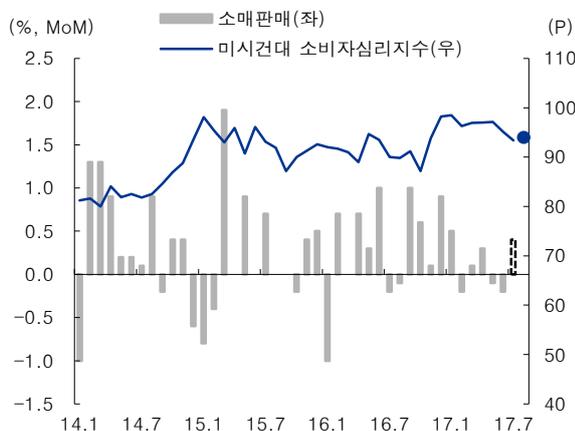
다음주에는 미국과 중국, 유로존 등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 먼저 미국 7월 소매판매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3개월만에 증가 전환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책 불안이 이미 반영돼 추가 하락은 제한됐을 것으로 전망. 7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주가 상승과 고용 호조 등으로 상승세는 이어갔겠지만 제조업 지표들이 조금 약해진 것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 미국 7월 광공업생산도 대내외 수요가 견고한 가운데 6개월 연속 증가했었지만 증가율은 낮아졌을 전망.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와 건축허가는 지난 6월에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한 뒤 다시 약화됐을 텐데 주택 수요는 강하지만 인력 및 토지 부족,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택 건설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에서는 7월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 등이 발표됨. 반기말인 지난 6월 지표가 강했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유지했을 전망. 7월 도시 신규주택가격도 발표되는데 반기말 이후 대출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도 추가로 낮아졌는지 관심. 유로존에서는 6월 산업생산이 나오는데 독일 산업생산 부진 등을 감안하면 지난달보다 약화됐을 것으로 분석. 그 밖에 7월 FOMC 의사록에 자산 채투자 축소 시작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힌트가 있을 지가 관심사고, 7월 ECB 회의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주목.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예상치	이전치	비고
8.11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2%	0.0%	7월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전환 예상
8.14	중국	7월	소매판매 YoY	10.8%	11.0%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증가율 기록 후 조금 하락 전망
	중국	7월	도시 고정자산투자 YoY Ytd	8.6%	8.6%	제조업투자 개선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증가율 유지 예상
	중국	7월	광공업생산 YoY	7.1%	7.6%	국내외 수요 개선으로 견고했겠지만 이전치보다는 낮을 전망
	유로존	6월	산업생산 MoM	-	1.3%	독일 생산 부진 등 감안 시 11월 이후 최고치에서 하락 전망
8.15	미국	7월	소매판매 MoM	0.4%	-0.2%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3개월만에 증가 전환했을 것으로 보임
8.16	유로존	2Q	GDP YoY 수정치	-	2.1%	속보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유로존 경기 개선 반영 전망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 MoM	0.8%	8.3%	4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후 소폭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
	미국	7월	건축허가 MoM	-2.8%	9.2%	3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후 감소 전환했을 것으로 보임
8.17	미국	7월	광공업생산 MoM	0.2%	0.4%	대내외 수요 견고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했을 전망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MoM	0.3%	0.6%	증시, 고용 등 호조에도 제조업 약화로 상승률 낮아졌을 전망
8.18	중국	7월	7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	-	전월대비 상승률이 추가로 하락했는지 관심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94.0	93.4	정책 불안으로 11월 수준까지 낮아져 추가 하락 제한됐을 전망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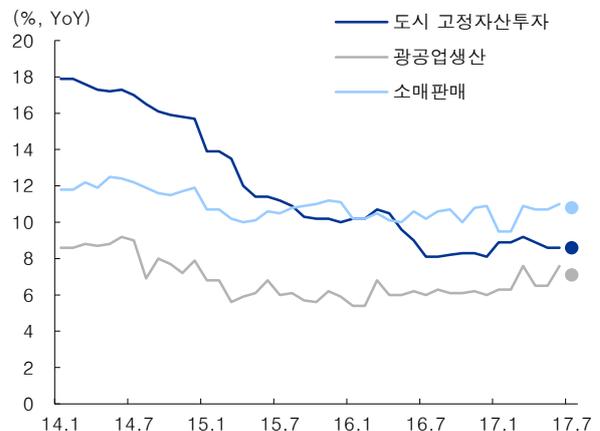
날짜	국가	이벤트	비고
8.16	미국	7월 FOMC 의사록 공개	자산 채투자 축소 시작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힌트가 있는지 관심
8.17	유로존	7월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테이퍼링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주목

미국 7월 소매판매 및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중국 7월 소비, 생산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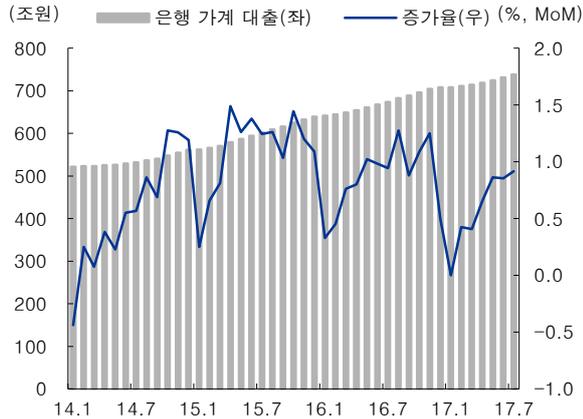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Weekly Review

### 한국 7월 은행 가계 대출 737.7조원

이전치 73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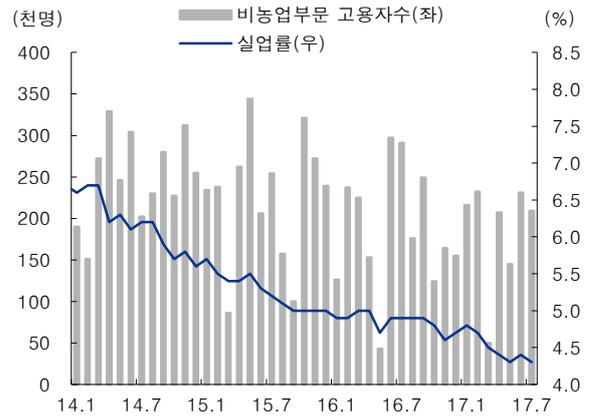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 7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7조원 증가해 8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큰 폭 증가
- 8.2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강한 압박 정책을 담고 있어 과열지역의 주택 매매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8월 중 가계부채 종합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어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7월 비농업부문 고용 20.9만명, 실업률 4.3%

예상치 18.0만명, 4.3% / 이전치 23.1만명,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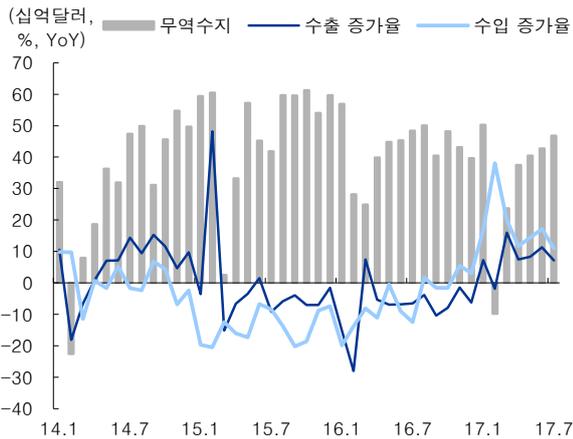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7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개월 연속 20만명을 상회하며 견고한 수준을 유지. 제조업 고용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되는 등 업종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가 이어지면서 실업률은 1개월만에 다시 4.3%로 하락
- 하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헬스케어와 레저 등 저임금 업종에 집중됨. 주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MoM 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 약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

### 중국 7월 수출 YoY 7.2%, 수입 11.0%, 무역수지 467.4억달러

예상치 11.0%, 18.0%, 450억달러 / 이전치 11.3%, 17.2%, 427.5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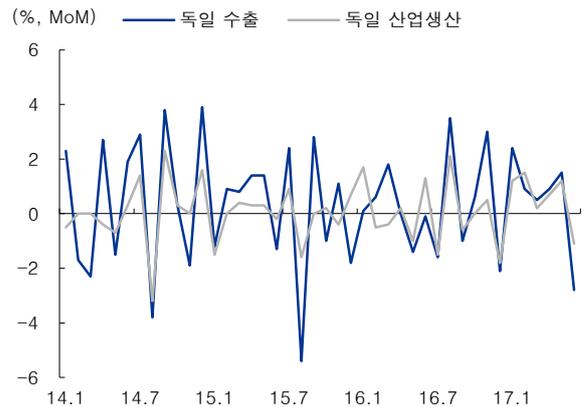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7월 수출입 증가율은 3개월만에 반락. 유럽 교역국을 중심으로 대외 수요는 아직 양호한 상황. 하지만 대(對)미 수출이 5개월만에 전월대비 감소 전환하는 등 미국과의 갈등이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입의 경우, 원자재 물가 하락이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판단. 양호한 고용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국내 수요도 유지될 전망. 다만 구조조정과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수요가 점차 위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독일 6월 산업생산 MoM -1.1%, 수출 MoM -2.8%

예상치 0.2%, 0.2% / 이전치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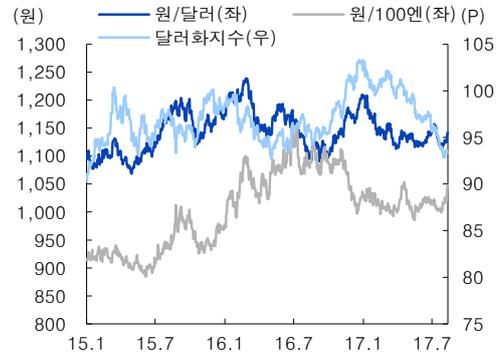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6월 산업생산과 수출은 올해 처음으로 전월대비 감소 전환. 특히 수출은 2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과 6월말 ECB의 테이퍼링 시사 발언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영향
- 7월 이후 꾸준히 유로화가 강세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지속됐을 것으로 판단. 하지만 연말 쇼핑시즌 준비로 대내외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 부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Economic & Marke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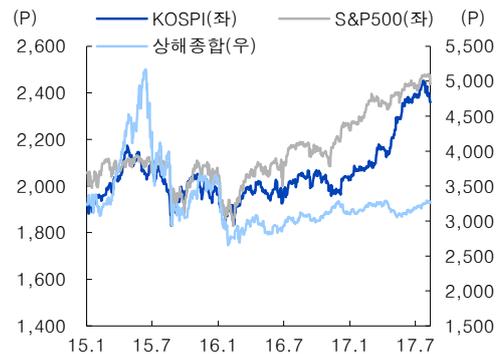
통화	현재	1W	1M	3M	YTD
달러화지수	93.39	0.59	-2.74	-6.30	-8.63
이머징통화지수	69.58	-0.16	1.94	2.90	5.40
아시아통화지수	107.21	0.12	1.18	1.68	4.15
원/달러	1,141.78	-1.15	0.67	-0.52	5.61
원/100엔	1,046.95	-2.76	-3.58	-5.53	-1.54
원/유로	1,340.72	-0.39	-2.19	-7.91	-5.20
원/위안	171.77	-2.18	-1.59	-4.21	1.08
달러/유로	1.18	-0.03	2.63	8.36	11.90
달러/파운드	1.30	-0.48	1.00	0.71	5.16
프랑/달러	0.96	1.06	0.12	4.71	5.87
달러/호주달러	0.79	-0.62	3.08	6.69	9.23
엔/달러	109.18	1.38	4.36	4.29	7.13
위안/달러	6.65	1.06	2.36	3.85	4.48
헤알/달러	3.18	-1.93	2.51	-0.27	2.49



금리	현재	1W	1M	3M	YTD
한국 국고 3년	1.81	0.08	0.06	0.08	0.17
한국 국고 5년	2.02	0.06	0.05	0.06	0.21
한국 국고 10년	2.32	0.06	0.03	0.02	0.22
한국 회사채 3년(AA-)	2.26	0.08	0.06	0.09	0.14
한국 회사채 3년(BBB-)	8.45	0.07	0.06	0.07	0.16
미국 국채 2년	1.325	-0.014	-0.058	-0.030	0.136
미국 국채 10년	2.198	-0.024	-0.176	-0.217	-0.247
일본 국채 10년	0.06	-0.01	-0.03	0.02	0.02
독일 국채 10년	0.42	-0.04	-0.13	-0.01	0.21
그리스 국채 10년	5.52	0.00	0.14	-0.13	-1.59
이탈리아 국채 10년	2.04	0.05	-0.25	-0.22	0.22
스페인 국채 10년	1.46	0.01	-0.21	-0.15	0.07
중국 국채 10년	3.66	0.03	0.07	-0.04	0.60
중국 RP 7일	2.90	0.03	0.10	-0.54	0.30



주가	현재	1W	1M	3M	YTD
KOSPI	2,359.47	-1.15	-1.52	2.75	16.43
KOSDAQ	640.04	-0.47	-2.43	-1.16	1.36
S&P500	2,438.21	-1.37	0.44	1.61	8.91
다우	21,844.01	-0.83	2.03	4.30	10.53
나스닥	6,216.87	-1.95	0.66	1.43	15.49
상해종합	3,261.75	-0.34	1.83	6.54	5.09
선전종합	1,872.60	0.18	-1.00	2.94	-4.90
항셱 H	10,782.20	-2.00	3.51	5.11	14.77
STOXX 유럽600	376.05	-0.76	-1.46	-5.15	4.05
독일 DAX	12,014.30	-1.16	-3.47	-5.83	4.64
일본 Nikkei225	19,729.74	-1.50	-2.31	-1.16	3.22
대만 가권	10,329.74	-1.34	-0.82	3.28	11.63
인도 SENSEX	31,531.33	-2.19	-0.58	4.24	18.42
브라질 보베스파	66,992.09	0.32	6.29	-0.53	11.23



원자재	현재	1W	1M	3M	YTD
RJ CRB	178.91	-0.96	3.57	-0.33	-7.06
LME 금속	3,058.00	2.70	8.75	13.50	14.98
BDI	1,050.00	2.64	28.05	4.48	9.26
WTI 선물	48.51	-1.06	9.26	2.49	-9.70
Dubai 현물	51.57	0.92	14.68	7.30	-4.48
Brent 선물	51.84	-0.33	10.58	3.23	-8.76
천연가스 선물	2.98	6.39	1.71	-9.51	-20.01
금 현물	1,286.53	2.20	5.65	5.02	12.12
구리 선물	290.35	0.89	10.00	16.75	15.89
알루미늄 3M	2,027.50	5.27	5.05	8.42	19.76
밀	440.50	-3.77	-16.97	3.89	7.97
대두	930.75	-2.08	-8.77	-3.22	-6.60
NAND	2.97	0.00	0.68	6.07	16.47
DRAM	3.19	-0.31	0.31	8.87	14.34

